

국제질서 붕괴와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

베르사유 체제, 대공황, 수정주의 강대국, 지도자 오판의 구조적 결합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학술논문 형식 분석보고서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단일 행위자나 단일 사건으로 환원하지 않고, 1919 년 이후 형성된 전후 국제질서의 구조적 취약성과 1930 년대의 경제위기, 수정주의 강대국의 팽창정책, 자유주의 강대국의 억제 실패, 그리고 히틀러와 각국 지도자들의 전략적 오판이 결합한 복합적 과정으로 분석한다. 베르사유 체제는 독일을 완전히 무력화하지도, 안정적으로 국제질서 안에 통합하지도 못한 불안정한 평화였다. 대공황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급진적 민족주의와 군국주의를 강화했다. 국제연맹과 집단안보 체제는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독일의 라인란트 진주와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를 억제하지 못했다. 특히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는 베르사유 조약 수정의 수준을 넘어 동유럽 정복과 유럽 패권을 지향했다. 1939 년 독소불가침조약은 폴란드 침공의 전략적 조건을 제공했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영국과 프랑스의 참전을 유발해 유럽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1931 년 만주사변과 1937 년 중일전쟁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전쟁은 1941 년 이후 유럽전쟁과 결합하여 세계대전의 성격을 완성했다. 본 논문은 전쟁 발발을 국제질서 붕괴, 경제위기, 이념적 급진화, 군사전략, 지도자 오판 이 상호 강화된 결과로 해석한다.

주제어: 제 2 차 세계대전, 베르사유 체제, 대공황, 파시즘, 유화정책, 독소불가침조약, 국제연맹, 일본 군국주의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as a systemic collapse rather than as a mere sequence of aggressive acts. It argues that the war emerged from the interaction of the unstable post-1919 order, the Great Depression, revisionist powers, the weakness of collective security, appeasement, American isolationism, Soviet security calculations, and Hitler's ideological program of expansion. Nazi Germany was the decisive immediate actor, but the wider conditions of international disorder made deterrence ineffective and transformed the invasion of Poland into a European war. The paper also emphasizes the linkage between the European and East Asian theaters, showing how Japanese expansion in Manchuria and China eventually fused with the European conflict into a global war.

Keywords: Second World War, Versailles system, Great Depression, fascism, appeasement, Nazi Germany, Japan, Soviet-German Pact

목차

1. 서론: 전쟁 원인을 보는 구조적 관점
2. 분석틀: 국제질서, 경제위기, 이념, 전략, 오판의 결합
3. 장기적 원인: 베르사유 체제와 집단안보의 실패
4. 중기적 원인: 대공황, 파시즘, 수정주의 강대국의 부상
5. 억제 실패: 유화정책, 미국 고립주의, 국제연맹의 한계
6. 단기적 원인: 독소불가침조약과 폴란드 침공
7. 유럽과 아시아 전쟁의 연결 구조
8. 행위자별 오판과 책임
9. 핵심 요약과 원인별 중요도 평가
10.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전쟁 원인을 보는 구조적 관점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은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침략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 설명은 틀리지 않다. 1939 년 9 월 1 일 폴란드를 침공한 행위자는 독일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촉발한 직접 원인도 독일의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1919 년부터 1939 년까지 국제질서가 왜 침략국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왜 여러 지역의 전쟁이 하나의 세계전쟁으로 결합했는지, 왜 민주주의 강대국들이 반복적으로 오판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제 2 차 세계대전은 하나의 원인으로 폭발한 전쟁이 아니라, 불안정한 전후질서와 경제위기, 이념적 급진화, 수정주의 국가들의 팽창정책, 집단안보의 실패, 그리고 지도자들의 전략적 오판이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이 구조 속에서 히틀러는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 행위자였으며,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는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다만 그 팽창주의가 성공적으로 억제되지 못한 배경에는 국제체제 전체의 취약성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을 장기, 중기, 단기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다. 장기 원인은 베르사유 체제의 불완전성,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 집단안보의 약함, 제국주의적 질서의 모순이다. 중기 원인은 대공황, 파시즘과 군국주의,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수정주의, 영국·프랑스의 유화정책이다. 단기 원인은 1938 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1939 년 독소불가침조약, 폴란드 침공, 그리고 영국·프랑스의 참전 결정이다.

요컨대 제 2 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의 전쟁”인 동시에 “전후 국제질서의 실패”였다. 전자는 직접 책임을 설명하고, 후자는 그 책임이 어떻게 세계적 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림 1.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구조적 원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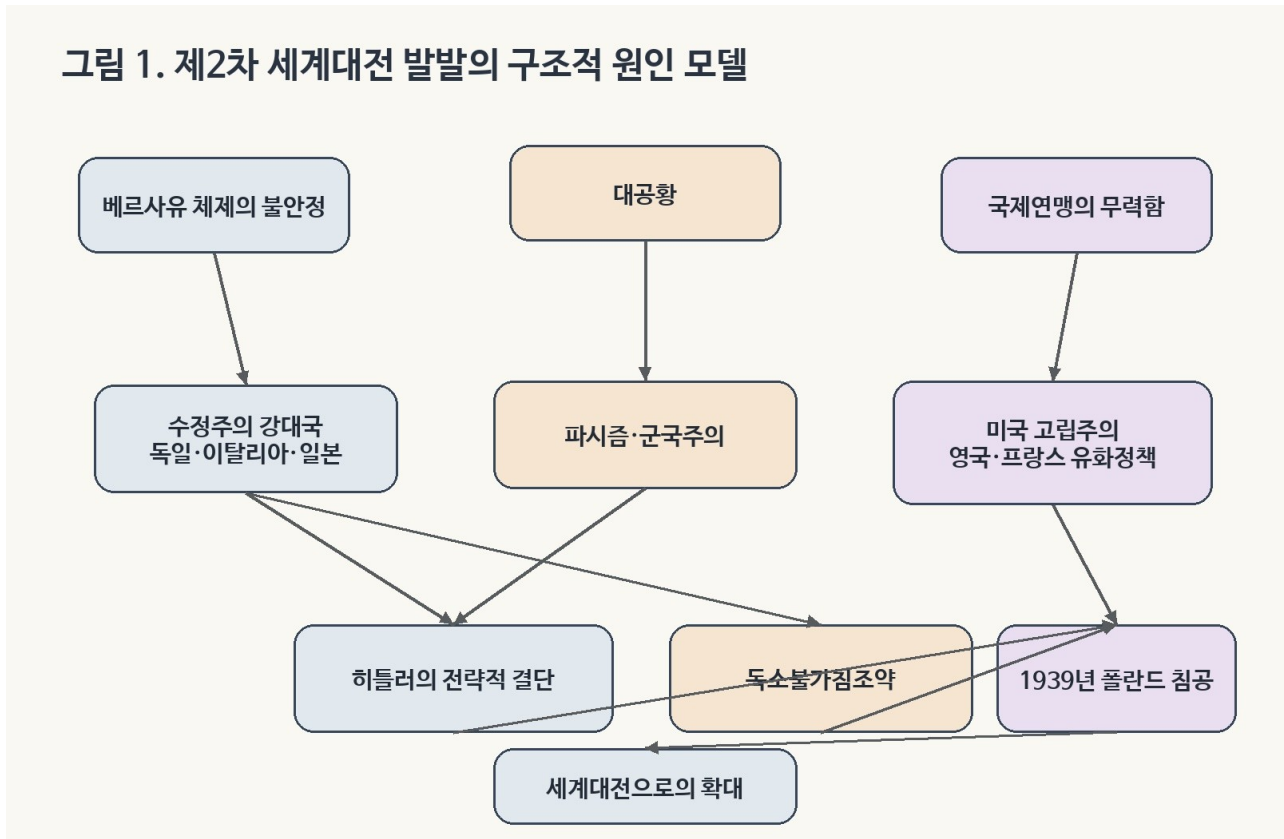


그림 1. 제 2 차 세계대전 발발의 구조적 원인 모델

2. 분석틀: 국제질서, 경제위기, 이념, 전략, 오판의 결합

전쟁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섯 층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국제질서의 층위다. 1919 년 이후의 질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패전국의 불만과 승전국의 불안을 동시에 증폭시켰다. 둘째는 경제적 층위다. 대공

황은 국내 정치의 급진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제 협력을 약화시켰다. 셋째는 이념적 충돌이다.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는 전쟁을 비정상적 파국이 아니라 정치적 재생과 제국 건설의 수단으로 이해했다.

넷째는 군사전략의 충돌이다. 독일은 재군비와 전격전적 작전개념을 통해 단기결전을 추구하고, 일본은 자원 확보와 대륙 지배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략공간으로 보았다. 다섯째는 지도자 오판의 충돌이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문제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목표가 제한적이라고 오해했으며, 스탈린은 독일과의 일시적 거러가 소련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 다섯 충돌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이념적 급진화를 키웠고, 이념적 급진화는 외교적 타협의 공간을 줄였으며, 집단안보의 실패는 침략국의 위험감수를 높였다. 다시 말해 전쟁 발발의 핵심은 개별 원인의 단순함이 아니라 상호강화 작용이었다.

3. 장기적 원인: 베르사유 체제와 집단안보의 실패

3.1 베르사유 조약의 딜레마

베르사유 조약은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였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불안의 원천이 되었다. 독일은 군비 제한, 영토 상실, 배상금, 전쟁책임 조항을 굴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약은 독일을 완전히 약체화하지도 못했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 중앙의 거대한 인구, 산업, 과학기술 기반을 가진 국가였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보유했다.

이 때문에 베르사유 체제는 이중의 실패를 안고 있었다. 독일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했고, 독일의 재도전을 영구적으로 막기에는 너무 약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재부상을 두려워했지만, 영국은 대륙의 세력균형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중시했다. 미국은 전후질서의 설계에 참여했으나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후질서의 규범은 있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안정적 권력구조는 부족했다.

베르사유 체제의 문제는 조약 내용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후 유럽이 독일의 불만을 관리하고 프랑스의 안보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지속적 협력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1920년대 로카르노 체제와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은 일시적 안정감을 제공했지만, 대공황 이후 그 취약성은 빠르게 드러났다.

3.2 국제연맹의 한계와 집단안보의 붕괴

국제연맹은 전쟁을 불법화하고 집단안보를 구현하려는 이상주의적 기구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 미국이 불참했고, 독자적 군사력이 없었으며, 제재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했다. 침략국이 강대국이거나 주요 강대국들이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피하려 할 경우 국제연맹은 실질적 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1936년 독일의 라인란트 진주는 집단안보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 사건들은 침략국들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냈다. 국제사회는 규범을 말하지만 실제 위험을 감수해 침략을 막지는 못한다는 신호였다. 이는 히틀러의 외교전략에서 특히 중요했다. 그는 매 단계마다 상대의 반응을 시험했고, 상대가 물러서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집단안보의 실패는 단순한 제도 실패가 아니라 신뢰 실패였다. 각국은 공통의 원칙보다 자국의 단기 비용과 국내 여론을 우선했다. 이때 침략국은 분열된 현상유지 국가들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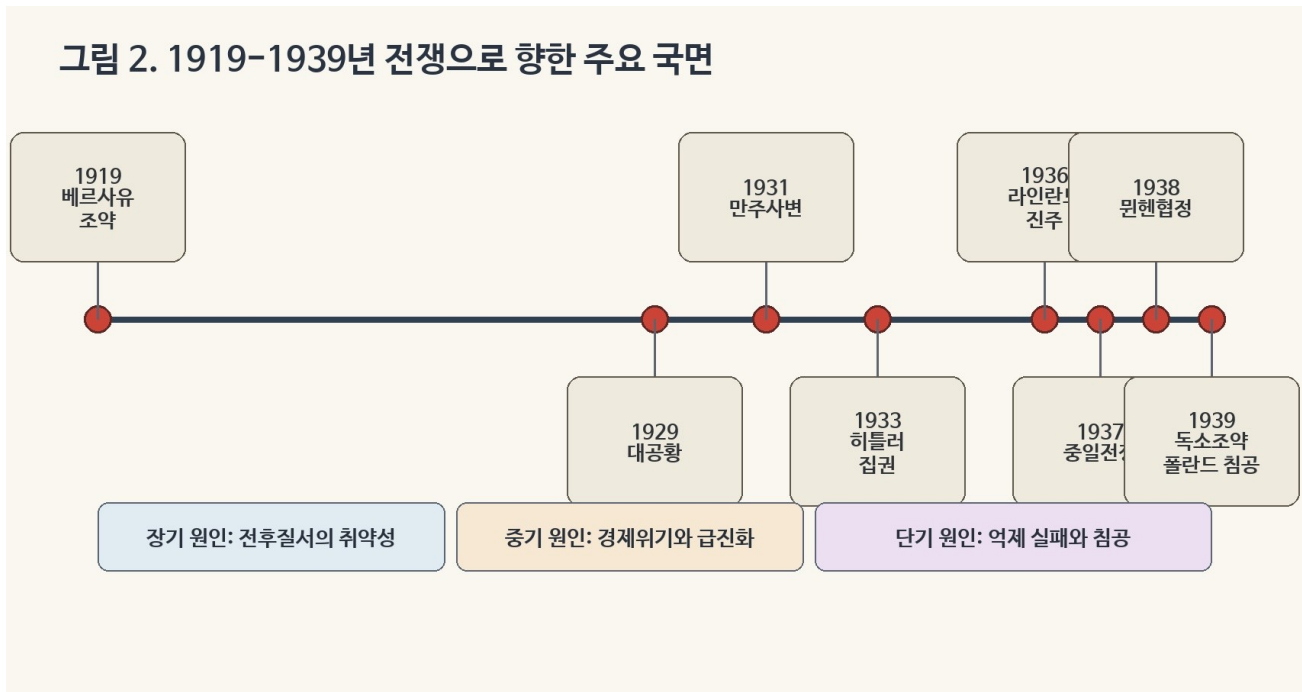


그림 2. 1919-1939년 전쟁으로 향한 주요 국면

4. 중기적 원인: 대공황, 파시즘, 수정주의 강대국의 부상

4.1 대공황과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약화

1929년 대공황은 국제질서의 취약성을 국내정치의 붕괴로 연결한 핵심 사건이었다. 경제위기는 실업, 빈곤, 금융불안, 보호 무역, 사회적 분노를 낳았다. 독일에서는 대공황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당성을 급속히 무너뜨렸다. 기존 정당들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급진적 대중정당은 불안과 분노를 동원했다.

나치당의 성장은 단순히 선전술의 성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공황은 독일 사회에 “기존 체제는 실패했다”는 감각을 확산시켰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 반공주의, 반유대주의, 경제회복 약속, 민족공동체의 신화를 결합해 정치적 지지를 확대했다. 경제위기는 민주주의를 타협과 절차의 체제로 보지 않고 무능과 혼란의 상징으로 보게 만들었다.

일본에서도 경제위기와 자원불안은 군부의 영향력을 키웠다. 일본 군부와 제국주의 세력은 만주와 중국 대륙을 자원 확보, 시장 확대, 안보 완충지대로 보았다. 경제위기는 국제협력보다 지역권 지배와 자급권 확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4.2 수정주의 강대국의 공통 구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했다. 세 국가는 모두 기존 국제질서를 불공정하거나 불충분한 질서로 보았고, 그 질서를 외교가 아니라 힘으로 수정하려 했다. 독일은 베르사유 체제를 파괴하고 유럽 패권을 추구하고, 이탈리아는 지중해와 아프리카에서 제국적 위상을 확보하려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을 밀어내고 대륙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다.

수정주의 국가들의 위험성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분쟁을 일으켰다는 데 있지 않았다. 이들은 국제질서의 규칙 자체를 부정했다. 따라서 개별 양보는 분쟁을 끝내기보다 다음 요구를 낳을 가능성이 컸다. 뮌헨협정이 바로 그 사례다. 주데텐란트 양보는 히틀러의 마지막 요구가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의 전 단계가 되었다.

파시즘과 군국주의는 이러한 수정주의를 대중동원과 국가전략의 언어로 만들었다. 전쟁은 방어적 예외가 아니라 민족 부흥, 생활공간 확보, 제국 건설의 수단으로 미화되었다. 이념은 전략을 급진화했고, 전략은 이념을 현실정치로 전환했다.

표 1. 수정주의 강대국의 불만과 목표

국가	주요 불만	전략 목표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
독일	베르사유 조약, 영토 상실, 군비 제한	유럽 패권, 동방 생활공간, 조약체제 파괴	유럽 세력균형 붕괴의 직접 원인
이탈리아	승전국 보상 부족, 제국 위상 불만	지중해·아프리카 팽창	국제연맹 제재 실패 노출
일본	자원 부족, 서구 중심 질서 불만	만주·중국 지배, 동아시아 패권	아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세계화

표 1. 독일·이탈리아·일본 수정주의의 비교

5. 억제 실패: 유화정책, 미국 고립주의, 국제연맹의 한계

5.1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

유화정책은 흔히 비겁함이나 순진함으로만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복합적 계산의 결과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기억,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 대공황 이후 재정 부담, 군사적 준비 부족,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고려했다. 특히 영국의 일부 엘리트는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수정 요구 중 일부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화정책의 결정적 오류는 히틀러의 목표를 제한적 수정주의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만약 독일의 목표가 독일계 주민이 많은 지역의 조약 수정에 그쳤다면 제한적 양보는 질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목표는 훨씬 급진적이었다. 그는 동유럽 정복, 유럽 세력균형 파괴, 인종주의적 제국 건설을 추구했다.

1938년 뮌헨협정은 이 오판을 상징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주데텐란트를 양보해 전쟁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히틀러는 서방의 전쟁의지가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는 유화정책의 전제를 무너뜨렸다. 독일은 더 이상 민족자결의 명분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공개적인 세력권 확대였다.

5.2 미국 고립주의와 권력 공백

미국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전후질서의 지속적 집행자 역할을 맡지 않았다. 미국 의회의 국제연맹 가입 거부와 집단안보 구상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켰다. 1930년대 중립법은 미국이 또 다른 유럽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국내정치적 의지를 반영했다.

문제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침략국의 계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단독으로 억제해야 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팽창을 조기에 제지하기 어려웠다. 국제질서에는 규칙은 있었지만, 그 규칙을 압도적 힘으로 보증할 국가가 부재했다.

물론 미국의 고립주의가 전쟁의 직접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억제구조를 약화시킨 중요한 조건이었다.

6. 단기적 원인: 독소불가침조약과 폴란드 침공

6.1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와 서방의 인식 변화

1939년 3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 사건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가 단순히 독일계 주민의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질서를 힘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인식했다.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의 독립을 보장했다.

그러나 이 보장은 군사적으로 취약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정치적으로 보장했지만, 독일이 실제로 침공할 경우 폴란드를 즉각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직접 군사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억제는 상대가 보장의 신뢰성을 믿을 때 작동한다. 히틀러는 과거의 양보 경험 때문에 서방의 보장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서방이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6.2 독소불가침조약의 전략적 의미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조약은 폴란드 침공의 전략적 조건을 마련했다. 히틀러는 소련과의 일시적 타협을 통해 양면전쟁의 위험을 줄였다. 스탈린은 서방을 신뢰하지 않았고, 독일과의 거래를 통해 시간을 벌고 동유럽에서 영향권을 확보하려 했다. 비밀 의정서는 폴란드와 동유럽의 분할을 예정했다.

이 조약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주의가 어떻게 전쟁 억제보다 전쟁 촉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일은 동부전선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았고, 소련은 단기적 안전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결과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의 협공 대상이 되었고, 유럽전쟁의 문이 열렸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이 순간 폴란드 문제는 지역 분쟁이 아니라 유럽 세력균형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침공은 더 이상 개별 국경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질서를 지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7. 유럽과 아시아 전쟁의 연결 구조

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유럽에서 갑자기 시작된 하나의 전쟁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통해 대규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만주국 수립과 중국 대륙 침략을 통해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 중국전쟁은 장기 소모전이 되었고, 일본은 자원 확보와 전략적 돌파를 위해 남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유럽전쟁과 아시아전쟁은 처음에는 독립적 전쟁처럼 보였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추축국 협력과 영국·프랑스·미국의 제국적 이해, 소련의 안보 계산이 맞물리면서 두 전쟁은 점차 연결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제국이었다. 따라서 유럽전쟁은 식민지, 해상교통로, 지중해, 중동, 아프리카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1941년은 두 전쟁축이 완전히 결합한 해였다. 독일의 소련 침공은 유럽전쟁을 이념적·대륙적 총력전으로 확대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었다. 이로써 유럽의 세력균형 전쟁과 아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은 하나의 세계대전으로 통합되었다.

그림 3. 유럽 전쟁과 아시아 전쟁의 결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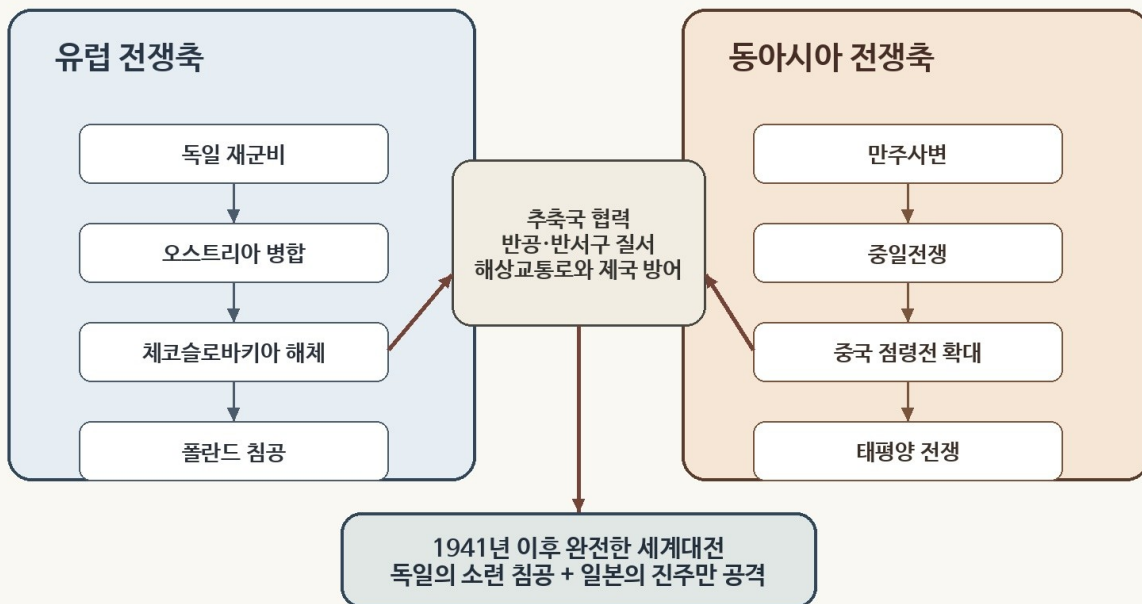


그림 3. 유럽 전쟁과 아시아 전쟁의 결합 구조

8. 행위자별 오판과 책임

8.1 히틀러와 나치 독일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전쟁 발발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책임을 진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수정을 요구한 보수적 민족 주의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독일의 재군비, 라인란트 진주,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폴란드 침공을 통해 유럽 질서를 단계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동유럽을 독일의 생활공간으로 보았던 나치 이념은 전쟁을 외교정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핵심 목표로 만들었다.

히틀러의 오판은 서방의 결의를 과소평가한 데 있었다. 그는 뮌헨 이전과 이후의 경험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문제로 실제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939년 9월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로 틀렸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오판은 이미 유럽전쟁을 시작한 뒤였다.

8.2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일본, 이탈리아

영국은 독일의 불만 중 일부를 합리적 조약 수정 요구로 보았고, 히틀러의 목표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오판했다. 동시에 영국은 시간을 벌며 재무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도 갖고 있었다. 프랑스는 독일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꼈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 방어전략 중심 사고, 영국과의 공조 필요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강경 억제에 나서지 못했다.

미국은 국제질서의 핵심 경제력과 잠재 군사력을 보유했으나, 고립주의와 중립주의에 묶여 있었다. 그 결과 국제연맹과 집단 안보는 가장 강력한 보증자를 잃었다. 소련은 서방을 불신했고 독일과의 불가침조약을 통해 시간을 벌려 했지만, 그 선택은 폴란드 침공을 가능하게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침공과 독일과의 접근을 통해 침략국 연대를 강화했다.

따라서 전쟁 책임을 평가할 때는 직접 책임과 구조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직접 책임은 나치 독일과 히틀러에게 가장 크다. 그러나 억제 실패, 질서 집행 실패, 오판의 책임은 여러 강대국에 분산되어 있다. 이 구분은 히틀러의 책임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책임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주요 행위자의 오판과 전략적 책임

행위자	핵심 오판	책임의 성격	결과
히틀러/나치 독일	서방이 폴란드 문제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직접적·결정적 책임	폴란드 침공과 유럽전쟁 발발
영국	독일 요구를 제한적 수정주의로 오해	억제 실패	뮌헨협정과 독일 위협감수 증가
프랑스	방어전략과 국내분열 속에서 적극 억제 실패	억제 실패	독일 재무장과 팽창 저지 실패
미국	유럽·아시아 분쟁과 거리두기 가능성 과신	질서 집행 공백	집단안보 약화
소련	독일과의 거래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	전략적 공모와 오판	폴란드 분할과 동유럽 불안정
일본	대륙 침략으로 자원과 안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지역 전쟁 확대 책임	아시아 전쟁의 세계화

표 2. 주요 강대국의 오판과 전쟁 확대 효과

9. 핵심 요약과 원인별 중요도 평가

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장기적 조건, 중기적 촉진요인, 단기적 방아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베르사유 체제가 패전국의 불만과 승전국의 불안을 동시에 낳았고, 국제연맹은 침략을 억제할 충분한 힘을 갖지 못했다. 중기적으로는 대공황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강화했으며, 독일·이탈리아·일본은 기존 질서를 힘으로 수정하려 했다. 단기적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독소불가침조약, 폴란드 침공이 유럽전쟁을 촉발했다.

원인별 중요도를 평가할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다. 이는 전쟁 발발의 직접 원인이며 다른 원인들을 실제 군사행동으로 전환한 결정적 요소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베르사유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 대공황, 독소불가침조약이다. 이들은 각각 전쟁의 배경, 정치적 급진화, 직접적 군사조건을 형성했다.

유화정책, 국제연맹의 무력함, 일본의 침략, 미국의 고립주의, 지도자들의 오판도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 특히 일본의 침략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유럽전쟁이 아닌 세계전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영향력은 작았지만, 국제질서 붕괴와 침략국 연대의 형성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그림 4.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별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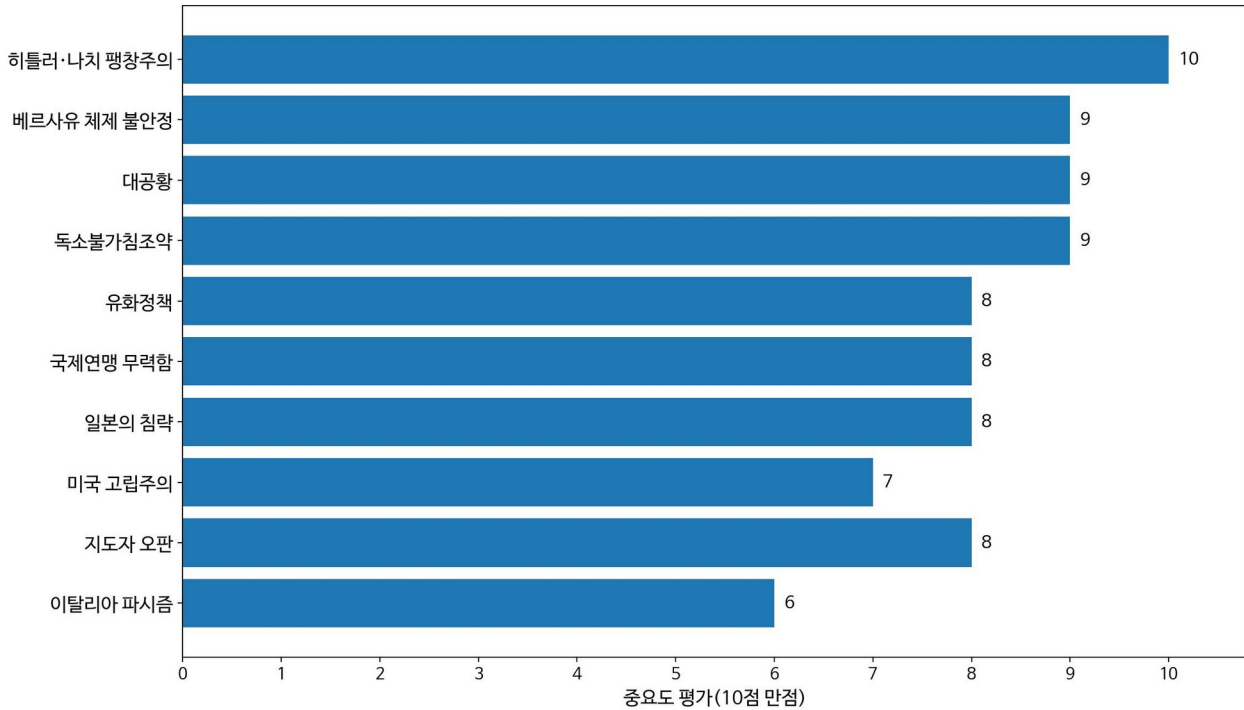


그림 4. 제 2 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별 중요도 평가

표 3. 장기·중기·단기 원인의 종합 정리

구분	핵심 원인	분석적 의미
장기 원인	베르사유 체제, 미국 불참, 국제연맹 약화	전후질서가 독일 불만과 프랑스 불안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함
중기 원인	대공황, 파시즘, 군국주의, 수정주의 국가 부상	국내정치의 급진화와 국제협력의 약화가 침략정책을 강화
억제 실패	유화정책, 중립주의, 제재 실패	침략국이 비용보다 보상을 크게 예상하도록 만들
단기 원인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독소불가침조약, 폴란드 침공	전쟁을 실제로 발화시킨 외교·군사적 조건
세계화 요인	일본의 중국 침략, 제국 해상교통로, 1941년 미·소 참전	유럽전쟁과 아시아전쟁이 하나의 세계대전으로 결합

표 3. 제 2 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의 단계별 구조

10. 결론

제 2 차 세계대전은 전후 평화체제의 실패가 누적되어 폭발한 국제질서 붕괴의 전쟁이었다. 베르사유 체제는 전쟁을 끝냈지만 안정질서를 만들지 못했다. 국제연맹은 규범을 제시했으나 규범을 강제할 권력과 의지를 갖지 못했다. 대공황은 국내정치의 급진화를 촉진했고, 파시즘과 군국주의는 전쟁을 국가재건과 제국확장의 수단으로 정당화했다.

그럼에도 전쟁 발발의 직접 책임은 나치 독일과 히틀러에게 있다. 히틀러는 조약 수정을 넘어 유럽의 지배와 동방 정복을 추구했고, 일련의 위기에서 상대의 양보를 전쟁의 기회로 해석했다. 1939년 폴란드 침공은 그 팽창주의가 더 이상 외교적 양보로 통제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강대국들도 오판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목표를 제한적으로 오해했고, 미국은 국제질서 보증자의 역할을 회피했으며, 소련은 독일과의 거래로 단기적 안전을 얻으려다 전쟁의 문을 열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대규모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하면서 1939년의 유럽전쟁은 1941년 이후 완전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유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대공황의 정치적 충격, 수정주의 강대국의 팽창, 민주주의 강대국의 억제 실패, 그리고 히틀러의 공격적 결단이 결합하여 발생한 세계질서 붕괴의 전쟁이었다.

참고문헌

- Bell, P. M. H. (2007).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Europe*. Pearson.
- Carr, E. H. (1939).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Macmillan.
- Hobsbawm, E. (1994).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Michael Joseph.
- Iriye, A. (1987).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in Asia and the Pacific*. Longman.
- Marks, S. (1976). *The Illusion of Peac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urope, 1918-1933*. Macmillan.
- Mazower, M. (1998).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Knopf.
- Mitter, R. (2013). *China's War with Japan, 1937-1945: The Struggle for Survival*. Allen Lane.
- Overy, R. (1995).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Longman.
- Paxton, R. O. (2004). *The Anatomy of Fascism*. Knopf.
- Steiner, Z. (2011). *The Triumph of the Dark: European International History 1933-1939*.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A. J. P. (1961).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Hamish Hamilton.
- Tooze, A. (2006). *The Wages of Destruction: The Making and Breaking of the Nazi Economy*. Allen Lane.
- Weinberg, G. L. (1994).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